**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  
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  
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**

**2/3 월**

**레 23:39, 43**  
**39** 너희는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, 일곱째 달 열닷샛날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. 그 첫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고, 여덟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다.  
**43** 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너희의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.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.’ ”

**요 7:2** 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.

**요 6:4** 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.

**신 16:13-15**  
**13** “그대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, 칠 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야 합니다.  
**14** 그 명절에는 그대와 그대의 아들딸, 그대의 남종과 여종,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.  
**15** 그대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칠 일 동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.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소산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그대는 다만 즐거워해야 합니다.

**2/4 화**

**히 11:1, 8-10, 13 (9, 10)**  
**1** 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,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.  
**8** 아브라함은 믿음으로,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,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.  
**9** 아브라함은 믿음으로,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,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.  
**10** 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,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.  
**13** 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.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,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.

**계 21:2-3**  
**2** 또 내가 보니,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,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 
**3** 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,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,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
**2/5 수**

**창 12:7-8**  
**7** 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."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.  
**8** 그는 그곳을 떠나 벧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가서, 서쪽으로는 벧엘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.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,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.

**창 13:3-4, 18**  
**3** 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벧엘 부근,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벧엘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.  
**4** 그곳은 아브람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. 거기에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.  
**18** 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,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.

**히 11:9** 아브라함은 믿음으로,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,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.

**갈 3:7** 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.

**2/6 목**

**요 7:37-39**  
**37** 명절 끝 날,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. “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.  
**38** 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.”  
**39** 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.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,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.

**계 21:6** 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다 이루어졌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, 시작과 끝이다.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.

**계 22:17** 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. “오십시오!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‘오십시오!’라고 말하십시오.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.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.”

**고후 3:17-18**  
**17** 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.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.  
**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
**2/7 금**

1. **요 20:22** 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,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. “성령을 받으십시오.
2. **고전 15:45** 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,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.
3. **요 14:19-20**  
   **19** 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,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,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   **20** 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,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,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.
4. **요 15:4-5**  
   **4** 내 안에 거하십시오.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,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 
   **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5. **2/8 토**
6. **출 30:23-24**  
   **23** “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,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,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,  
   **24** 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.
7. **요일 2:20** 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.
8. **고전 3:6, 9, 12-13**  
   **6** 나는 심었고,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.  
   **9** 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,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.  
   **12** 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,  
   **13** 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.
9. **2/9 주일**
10. **엡 4:16** 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11. **요일 5:6** 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.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.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.
12. **요 16:13** 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,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,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
13. **고전 2:10** 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,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.
14. **고전 6:17** 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.
15. **벧전 2:11** 사랑하는 여러분,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.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,
16. **갈 3:7** 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.